

소 식

대한양계협회

홍보협찬금 68,750,000원 모금

— 금년 목표 1억5천만원 —



△ 박 찬 긍 회장



△ 폴·벤웰레겜 사장

본회는 중점사업으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양계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소비홍보 협찬금 실적이 부진해 당초 계획만큼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홍보협찬금 목표는 1억5천만원으로 6월말 현재 68,750,000원이 모금되었다.

양계인과 유관업체·단체의 뜻있는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6월중 50만원 이상 협찬(사진참조)으로는 한국사료협회(회장 박찬궁)에서 3천만원, (주)퓨리나코리아(대표 폴·벤웰레겜)에서 2,000,000원, (주)한국특수사료(대표 이중희)에서 1,000,000원을 냈다.

한국사료협회는 본회 홍보 협찬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0,000원을 지원키로 지난 6월 27일 동협회이사회에서 확정했다.

본회 정회장, 장관 및 축협회장 방문

5월말 계란가격안정 대책건외에 대해 본회 정태원회장은 이의 관철을 위해 6월말, 7월초 농림수산부장관과 축협중앙회장을 각각 방문해 양계업계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계란수급과 가격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공판장을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해줄것과 양계산물 소비홍보촉진사업도 적극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장관과 축협중앙회장은 본회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는 지난 5월 27일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계란가격안정 대책으로 가공공장 및 GP센터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계란우수성 전단 제작 —(주)퓨리나코리아에서 협찬—

본회는 (주)퓨리나코리아(대표 폴·벤웰레겜)의 협찬으로 계란우수성 전단 10여만부(2백만원 상당)를 제작하였다.

지난 4~5월에 실시했던 닭고기·계란 홍보포스터 현상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포스터(계란우수성 홍보)를 전면에 싣고 후면에는 계란의 우수성에 대해 게재하였다.

본 전단은 계란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하여 본회 지부 및 본회 계우회 유관업체 등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배포 중에 있다.

계란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하여 전단이 필요할 경우 본회 홍보실(전화 778-8103, 4)로 연락하면 공급이 가능하다.

여고 조리실습 지원

—1988. 6. 14~6. 24일 1,200여명 실습—



△ 상일여고 조리실습 광경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주부인 여고생들에게 닭고기·계란 영양강의 및 조리실습을 실시하였다.

지난 6월14일부터 24일까지 상일여자고등학교(강동구 상일동 소재) 1학년 20학급 전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닭강정을 실습했다.

본회 직원이 영양강의를 20분 간한 후 조리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닭강정은 닭고기를 깨끗이 손질한 후 잘게 토막내어 치킨용 튀김가루에 골고루 묻혀 2번 튀긴 후 토마토케찹, 설탕, 참기름, 육수가 섞인 소스에서 조리하는 요리로써 달콤새콤한 맛이 청소년들의 입맛을 끌어 인기가 좋았다.

실습 후에는 선생님께 평가를 받은 후 시식회를 가졌으며 본회에서 준비한 닭고기·계란 홍보 팸플렛이 배부되었다.

이번 상일여고 조리실습에 쓰인 식용유와 치킨용 튀김가루는 (주)제일제당에서 협찬했다.

닭고기·계란 요리실습 및 시식회 개최

—상일여고 여교사 대상—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계란 영양강의 및 요리 실습, 시식회를 지난 6월23일(목) 상일여



△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요리강습회를 실시

고 가사실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상일여자고등학교 여교사 69명으로서 닭살 샌드위치, 스테이크, 오믈렛 등을 직접 만들었다.

닭고기·계란의 특성과 영양적 우수성 강의를 들은 여교사들은 닭고기·계란이 새롭게 보인다며 오늘 배운 요리는 조리법이 간편해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겠다며 학생들의 간식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음식이라고 칭찬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해 소비홍보의 보람을 느끼게 했다.

본지 발행인 변경등록

—본회 정태원 회장으로—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86년 6월부터 중책을 맡아오던 차상진(봉명부화장 대표)씨가 '88본회 정기총회 임원개선에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임원직을 사임하여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본회 정태원 회장을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문화공보부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여 88년 6월7일자로 변경등록이 수리되어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신임 편집위원장 선출

—임병규 서울사료 전무가 맡아—

제6차 편집위원회가 지난 6월8일 오후5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편집위원장 선출 및 6월호 검토와 7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편집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임병규 전무는 본지발간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편집방향을 위해 노

력해 왔다.

한편 86년 5월부터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정선부 박사(축산시험장 가금과장)는 지난 임기 2년동안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본지에 수많은 양계관련 옥고를 실어 양계산업 발전에 전력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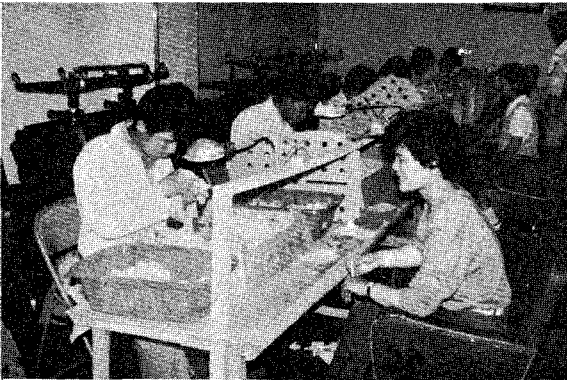
'88년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및 감별사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 감별사 정유범씨 차지—



정 유 범 씨
◁경진대회 최우수상

본회는 지난 6월3일(금) 축산회관에서 '88년 제1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과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87명이 응시한 갑종시험은 47명이 합격하였고, 고등감별사 응시자는 20명중 5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감별사 경진대회에서는 신기농장 하바드농장의 정유범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에는 김이순씨, 장려상에는 하경미씨가 각각 차지했다.



△ 감별사 자격시험

감별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감별사합격자(5명) : 문형기, 광용숙, 윤근상, 김옥동, 강영수

갑종감별사합격자(47명) : 김갑순, 안미경, 박선미, 오

민근, 정태로, 김용승, 박종상, 김청배, 윤미경, 박치연, 김기숙, 김경수, 전시기, 홍석인, 정대호, 이강우, 김광진, 도정훈, 최병환, 우건섭, 권혁재, 공병희, 이덕우, 서승남, 김현석, 이진우, 정운집, 김진수, 허평옥, 소영석, 오세원, 박종현, 정혜림, 양명환, 김계명, 김홍배, 김기범, 강성호, 김현숙, 송숙영, 최윤창, 이진봉, 장순분, 김양훈, 윤근상, 임현주, 노지철

류코싸이토준병 발생 신고망 조직

류코싸이토준병은 닭겨모기가 전염매개체로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병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금년도는 다행히 가뭄으로 모기발생이 줄은 듯하다. 본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동질병발생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발병즉시 본회나 본회 각도지부 분회에 신고함으로써 초기에 예방코저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화 : 752-3571~2, 6917·778-8103~4

■ 본회 지부 및 분회 연락처

지부 및 분회명		전화번호
지부	전 북	(0652) 3-4653
	전 남	(062) 54-9010
	경 북	(053) 752-8619 755-0709
	경 남	(051) 54-2801 552-5403
	제주	(064) 22-0195
	분회	포 천
동 두 천		(0351) 5-2374
안 성		(0334) 2-2113
인 천		(032) 864-6248
광주채란		(0347) 62-0978
광주육계		(0347) 2-3926
이 천		(0336) 33-0285
용 인		(0331) 8-5232
수원육계		(0331) 43-4269
천안육계		(0417) 62-4312
김포육계		(0341) 2-6077
의정부	(0351) 43-4248	

6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는 지난 6월 27일(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6월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경기전망에 대하여 각 지역별 정보를 교환하고 부화장의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크다는데 우려를 하면서 최근 국제옥수수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토론하였다. 배합 사료원료가격의 인상으로 국내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육계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고 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생산감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계열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각 지역별 계열화와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그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광주채란분회 월례회의 개최 —계란하치장 건립 추진중—

본회 광주채란분회(분회장 최준구)월례회의가 지난 6월17일 오후4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가격 고시제도 개선과 계란하치장 건립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는데, 계란가격 고시제도 개선에 있어서 최준구 분회장은 “장기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계란고시가격에 있어 이중삼중 고시를 개정, 생산자가격과 상인가격으로 양분 고시하여 후장기 제도를 막음으로써 도산직전에까지 처한 생산자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유통구조 개선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채란분회는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협의하여 광주지역에 계란하치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 하치장은 1일 20만개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기 2대를 도입, 출자한 조합원 농장 물량만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닭질병 방역세미나 개최 예정

서울대 수의과대학부설 수의과학연구소는 오는 7월 23일(토) 오후 2시 동교에서 닭질병 방역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양계협회 후원으로 개최될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닭질병 전문가를 초빙하고 국내에서 김선중(서울대), 김재홍(가축위생연구소), 오경록(천호인티그레이션)박사 등이 발표할 예정으로 일본 닭질병 방역대책, 종계 후반기 산란, 변이형 마택병, 사육환경과 사료위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수의과대 김선중 박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본회·지부임직원 수련대회 개최 —6월 9~10일, 전북 금산사에서—

본회 및 각도지부 임직원의 유대강화와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본회·지부임직원 수련회가 지난 6월 9~10일(1박 2일) 금산사 모악산장에서 실시되었다.

첫날 만찬회에서 본회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음과 같이 양계업이 장기적인 어려움속에서도 본회 및 각도지부·분회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적인 생산자의 권익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금년 협회 중점사업인 홍보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양계인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방향제시를 해나가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본회·지부·분회 임직원들의 긴밀한 단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인옥전무는 본회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도지부·분회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본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신체단련시간에는 참가한 전임직원이 모악산 정상까지 행진을 하면서 신체단련과 함께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86년도부터 년 1회 임직원수련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회장단에서 전액 협찬했다.